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사회 교리 주간

가톨릭마산



〈요아킴과 안나에 안긴 성모 마리아〉
코라 교회, 이스탄불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12월 8일)



사랑의 길

문화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1901~1978)는 한 학생으로부터 “문명의 첫 증거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토기, 사냥 도구, 숫돌 혹은 종교적 유물을 마거릿 미드가 말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마거릿 미드는 진실한 문명의 가장 오래된 증거는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발견한 15,000년 전의 ‘치유된 다리뼈’라고 하면서 강의실의 학생들에게 뼈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약육강식의 법칙이나 적자생존의 법칙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치유된 넓적다리뼈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치유된 사람의 다리뼈가 인류 문명의 첫 번째 증거인 이유를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대의 야생에서 뼈가 부러지는 부상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인간은 맹수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러졌다가 치유된 다리뼈는 회복될 때까지 누군가가 함께 있으면서 돌봐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행동이 문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첨단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사는 이웃이 많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을 지내고 있으며 또한 인권 주일과 사회 교리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가 ‘가장 작은 이들’(마태 25,40)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봅니다.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더 진화된 참된 문명의 표시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구원의 표시가 되어야 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마태 25,46)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예언자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곧게 내어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외칩니다. 그 길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특히 ‘가장 작은 이들에게 행하는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요한 4,8).



박인수 요한 신부 | 함안본당 주임



제 1 독 서 이사 40,1-5,9-11
 화 답 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제 2 독 서 2베드 3,8-14
 복 음 마르 1,1-8

주일 진레

‘예.’, ‘아니요.’의 용기

하느님이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많은데, 그중에서 참으로 감사할 일은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말로써 자기 의사와 감정을 표현하며 살아간다. 예수님은 마태 5,37에서 그러한 우리에게 분명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라고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해야 하며,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다.

만약 ‘예.’라고 해야 할 때 ‘예.’라고 하지 못하고, ‘아니요.’라고 해야 할 때 ‘아니요.’라고 하지 못하면 용기가 모자란 부끄러운 비겁자가 되고, ‘예.’라고 할 것을 ‘아니요.’라고 하고, ‘아니요.’라고 할 것을 ‘예.’라고 하면서 부질없는 대담성을 보인다면 용기가 지나친 만용이 된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322)는 용기勇氣를 비겁卑怯과 만용蠻勇의 중용中庸이라고 했다.

그러면 누가 용기 있는 자일까?

필자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라고 할 것은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자라고 하고 싶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 왕이 부하 우리야Urijah의 부인 밋세바Bathsheba와 정을 통하고 자기 아내로 삼자, 예언자 나탄Nathan이 왕을 찾아가 ‘한 성읍에 사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대접했다(2사무 12,4 참조)’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몹시 화를 내며, 그런 짓을 한 자는 죽어 마땅하니 그 암양을 네 곱절로 갚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나탄은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2사무 12,1-7 참조)라고 말하였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었다.

헤로데Herodes 왕은 로마 출장 중에 이복동생 필리포스의 부인 헤로디아Herodias에게 반한 나머지 그녀를 아내로 차지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마르 6,18)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당시 절대 권력자 다윗과 헤로데에게 한 예언자들의 직언은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지만 예언자들에게 나타내 보인 그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다.

다윗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2사무 12,13) 하고 겸손하게 죄를 고백했다. 그리고 단식을 하며 회개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돌로 골리앗을 때려눕힐 때보다 더 큰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헤로데는 ‘예.’라고 해야 하는데도 ‘아니요.’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만용을 부렸다. 그리하여 헤로디아와 합세하여 옥에 갇혀 있던 요한의 목을 베고야 말았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위급한 상황일 때 비겁하게 살거나 만용을 부리는 자들이 있었고, 또 참 용기를 발휘하여 그 상황을 극복해낸 자들이 있었음을 보아왔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예.’라고 해야 할 때 ‘예.’ 하고, ‘아니요.’라고 해야 할 때 ‘아니요.’라고 해야 한다. ‘흰 것은 희다고 하고, 검은 것은 검다.’라고 해야 하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용기 있는 자의 삶이며, 또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했던 나탄과 요한과 같이 용기 있게 예언자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라고 한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12월을 지내면서, 비겁도 만용도 아닌 진정으로 ‘예.’와 ‘아니요.’의 용기 있는 삶을 살도록 하자.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프란치스코의 경제’: “경제+형제애×발전=미래”

김중훈 엠마누엘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에 따라, 젊은 경제인들을 위한 ‘프란치스코의 경제’ 대회가 11월 19일 아시시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의 목표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의 정신에 따라 경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기와 최근 발표된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의 실천을 위한 젊은 경제인들의 일상적 운동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의 내면적 목표는 젊은이들이 심각하게 절감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젊은이들의 노력을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밀라노 성심가톨릭대학교 연구원 도메니코 로시놀리 교수는 이번 모임의 정신은 “건전한 경제의 기초는 형제애”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의 젊은이, 경제인, 기업인, 활동가들이 현재의 불공정한 경제를 바꾸고 내일의 경제에 영혼을 불어넣자는 약속에 동참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교황은 ‘프란치스코의 경제’ 대회를 맞아 전 세계의 젊은 경제인과 기업인들에게 서한을 보내 새롭게 건설해야 할 경제 모델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와는 다른 경제입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경제,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경제, 비인간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경제, 피조물을 착취하지 않고 돌보는 경제입니다.” 교황은 이러한 새로운 경제 모델이 “형제애와 공정에 기반한 친교 문화의 결실”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정신을 새기며 아시시의 천사 연구소 소장 프란체스카 디 마올로는 ‘프란치스코의 경제’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경제+형제애×발전=미래”

경제가 형제애를 통해 발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의 빛 안에 머무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데드 맨 워킹〉

〈데드 맨 워킹〉을 아십니까? ‘사형집행을 직감한 사형수가 형장으로 이동하는 걸음을 뜻하는 이 말은 ‘곧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미 죽은 자’라는 은유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제목의 영화를 알고 있습니까? 영화 〈데드 맨 워킹〉은 연인인 두 사람을 살해한 사형수와 그를 돕고자 하는 한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사형수의 이름은 올랜도 홀이고 그 수녀는 헬렌 프레진입니다.



미연방 정부는 11월 19일 〈데드 맨 워킹〉의 실제 인물인 올랜도 홀의 사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 주교회의의 주교들은 올해 연방 차원에서 7명의 사형을 집행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군가를 사형에 처하지 않는 결정은 결코 ‘범죄에 대한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 존중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다”고 하면서, 올랜도 홀의 사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올랜도 홀과 함께 〈데드 맨 워킹〉의 동반자인 헬렌 프레진 수녀는 이제 49살이 된 홀의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수녀는 올랜도 홀의 재판이 ‘인종 차별에 완벽하게 오염된’ 판결이라고 비난합니다. 헬렌 수녀는 ‘안타까운 것은 올랜도 홀이 그 재판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 인권 보호 내지는 방어 수단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올랜도 홀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실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헌법적 보호가 유죄와 무죄 판결에 있어서 동등하게 적용될 때, 그 의미와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헬렌 수녀에 의하면, 재판 당시 연방 검사는 배심원들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일관하였으며, 마침내는 6명의 흑인 배심원들에게 기피권을 행사함으로써 배심원단으로부터 배제하였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미래에 계획된 사형을 중단시킬 이유가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노골적인 인종 차별은 공공의 신뢰를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현재의 시스템보다 더 나은 것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형 폐지 운동’은 결코 사형이 살인을 억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오히려 살인과 폭력의 증감은 불평등과 가난, 차별과 천대의 증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평등, 가난, 차별, 천대, 소외 등이 증가하면 살인과 폭력도 증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 실천이 왜 중요한지 일깨워 줍니다. 위령 성월을 지냈지만, 다시 한번 ‘데드 맨 워킹’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귀중함과 사랑의 연대를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하 마리아 여사의 선종을 애도하며

친애하는 형제주교님, 마산의 교우 여러분!

저는 마리아 하이젠베르거(하 마리아) 여사가 전능하신 하느님 곁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고국인 오스트리아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일을 하셨던 그녀를 저는 저의 첫 번째 한국 여행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녀는 특별한 분이셨고 여러분은 그녀를 떠나보내며 가지는 애도의 마음을 장례미사에서 특별히 표현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 마리아 여사를 당신 거처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며 청하는, 여러분과 여사님 친지가족의 기도에 제 기도를 보탬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스트리아는 두 번째 코로나 봉쇄조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팬데믹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폭증하는 감염자 수로 우리나라 정부는 공공 생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책무를 알고 있기에, 12월 6일까지 소그룹의 인원이 모두를 위해, 모두를 대신해서 미사를 봉헌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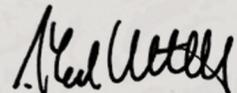
전 세계에 특별한 해가 될 2020년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증거적 삶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전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하나 된 믿음의 결속 안에서 인사드리며

2020년 11월 25일 그라츠에서

그라츠-섹카우 교구



빌헬름 크라우트비셀 주교

2020. 11. 27. 위령미사



교구장 동정

신학생 방학인사
 일사: 12월 7일(월)
 장소: 교구청

견진성사

일사: 12월 9일(수)
 장소: 함양성당
 집전: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사: 12월 8일(화) 10:00
 장소: 교구청

교구 성경봉사자 종강 미사 및 모임

일사: 12월 8일(화)
 장소: 교구청

청년 피정

일사: 12월 12일(토) 14:00~13일(주일)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주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정(중독과 회복)
 강사: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대상: 청년, 선착순 50명 마감(전원 1인실)
 참가비: 1인 6만 원/ 신청: 12월 6일(주일)까지
 준비물: 필기구, 미사 준비(봉한금), 세면도구(수건), 간편한 복장(따뜻한 옷), 텀블러, 마스크, 시계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수도회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모집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장소: 골롬반 평신도 선교사 센터 (서울 동선동)
 문의: 노혜인 안나 선교사 010·3817·0567

예수마음기도 영성 수련(권민자 수녀)

일사: 1박 2일 - 12월 5일(토)~6일(주일)/
 21년 1월 9일(토)~10일(주일)
 3박 4일 - 12월 17일(목)~20일(주일)/
 21년 1월 14일(목)~17일(주일)
 8박 9일 - 12월 26일(토)~21년 1월 3일(주일)/
 21년 1월 31일(주일)~2월 8일(주일)-신학생
 40일 - 12월 22일(화)~21년 1월 30일(토)
 21년 4월 6일(화)~5월 15일(토)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해넘이 피정

일사: 12월 30일(수) 16:30~21년 1월 1일(금) 13:30
 장소: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24만 원,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소리,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한라산눈꽃피정: 21년 1월 8일~10일/ 1월 23일~25일/
 21년 1월 29일~31일/ 2월 5일~7일/
 21년 2월 20일~23일/ 2월 27일~3월 1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기타

제27차 해외선교사교육(2021년)
 일사: 21년 1월 11일(월)~2월 5일(금)
 장소: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선교센터(서울 성북구)
 대상: 해외선교를 준비하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양성담당자
 문의: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02·953·0613

최재상 신부 8번째 개인전

일사: 12월 11일(금)~2021년 1월 3일(주일)
 장소: 연아트 갤러리(창원 시티세븐 43층 CLOUD)

금산본당 제7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이강웅(프란치스코)
 사목협의부회장(남성): 최용조(요아킴)
 사목협의부회장(여성): 이혜숙(안나)
 총무분과위원장: 김홍래(멜라노)
 재경분과위원장: 하원수(다니엘)
 교육분과위원장: 이진형(이나시오)
 전례분과위원장: 김미란(에스텔)
 복음화분과위원장: 김상호(요셉)
 구역분과위원장: 유희정(아네스)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성인기(베드로)
 청소년분과위원장: 김정윤(비비안나)
 시설분과위원장: 천상용(요한)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이은주(글로리아)
 홍보분과위원장: 강선주(셀리나)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12월 13일(주일) 14:00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p>제주성지순례 3박 4일 32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5150-2625</p>	<p>백합식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수녀원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콩 백합식품본사 053)857-2037 서울 02)02-2202-8392 대구 053)257-1771 www.spcffood.co.kr</p>	<p>제주성지순례 3일 모집 2021년 1월 4일, 15일/ 2월 5일, 15일/ 3월 5일, 15일/ 4월 5일, 9일/ 5월 3일, 28일/ 6월 4일, 28일 (추자도포함, 성지해설, 성지미사)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p>	<p>40년 전통 <팔보효소> PALBO 효소단식 · 해독요법 ▶ 미·중국 수출 ▶ 부모님 건강 선물 ▶ 간헐적단식 ▶ 면역력증강 ▶ 효소피정 ▶ 지리산 신청 발효·OEM 전문·소화효소 www.palbo.co.kr ☎1600-0830</p>
<p>Enjoy your life AV Team (주)AV팀 Since 2005~ avteam.co.kr 음향, 영상 시스템 설계/ 시공/ 방문 점검 및 컨설팅 김지훈 바오로 010-3243-5655</p>	<p>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의로 489 (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p>	<p>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p>	<p>SM 수맥홍(홍)침대 주보 차침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 · 신문 광고 中 1588-5335</p>



특별함의 극치, 평범함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참~ 예쁘다!’

초등학교 3, 4학년쯤 된 여자 아이가 밭에 가는 길 도중, 도로변에 있는 한 시골 공소의 성모상을 바라 보며 마음 속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밭에 갈 때마다 아이는 성모상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고 그 성모상 과 친숙해집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는 열심히 다니던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옮겨,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분, 특별한 분으로 생각한 마리아를 본명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대학생이 된 그 아이는 왼쪽 머리카락을 귀 위로 바짝 끌어당겨 진뺨강의 역삼각 형 머리핀을 꽂고, 진뺨간 모직 자켓에 검정 바지를 즐겨 입고 다니는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보 아도 눈에 딱 뜨이는 색깔입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모임을 갖든 모든 활동을 할 때 노골적으로 드러 내지는 않았지만, 항상 자신이 제일 잘하고, 잘 나고, 언제나 남들 눈에 뜨이는 특별한 사람이기를 바랐습 니다.

일상적인 것, 평범하고 보통으로 보이는 일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차지도 않고 별 가치도 없어 보였습 니다. 늘 특별한 것을 쫓아 여전히 특별나기를 바라며 지내던 어느 날, 잘 알고 지내는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특별나기를 바라지 않고 평범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신 신부 님의 말씀이 그 아가씨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그때부터 특별하고자 유달리 애를 썼던 마음의 많은 부분을 신부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하지 않으려 했 지만, 마음 한 편에서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랄까 갈망의 강력함은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꽂혀 있던 그 아가씨의 뇌리에 한 생각이 떠오르며 자문을 합니다.

‘사람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인간 중에 가장 특별한 분이 성모님이신데, 그분의 삶이 어떠했지?’ 구세 주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임에도 성경에 몇 번 등장한 것 외에 그 어떤 특별한 업적을 남긴 것이 없지 않은 가? 오히려 눈에 뜨이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삶을 주어지는 대로 충실히 살아가지 않으셨는가? 그렇다면 그 분이 온 인류가 추앙하는 특별한 분 중에 특별한 분이 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분이 그분이 일상에서 일 어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모든 일들을 평범함 안에서 충실하게 사셨다는 것 그것이 아닐까? ‘특별함이 최 고조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지극한 평범함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른 아가씨의 마음은 그동안 자 신을 온통 휘감았던 특별함에 대한 집착이 180도로 바뀌며 깊은 고요와 평화로운 기쁨이 잔잔하게 일렁 이는 파도인 듯 마냥 출렁거렸습니다.

지금 그 아가씨는 하루 일곱 번의 기도와 미사, Lectio Divina(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육체노동, 식사, 잠이 잘 조화된 일과표에 따라 평생 봉쇄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관상 수도자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은총이 가득한 이,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하느님의 총애를 받은 이인 시골 처녀인 마리아의 ‘예’는 이렇게 어제든 오늘도 내일도 모든 인류를 당신의 가장 깊숙한 모태 안에 품으시며, ‘하느님의 모성적 행위의 성사적 존재’로 우리 모두 안에 서 진정한 우리의 특별한 어머니로 현존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드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지상 여정 바로 곁에서, 평범하게 흐르는 일상 안에 철저 하게 또 충실하게 자신의 일생을 새겨 놓으신 성모님의 삶은 그래서 하느님을 관상하는 관상가의 모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경축하며 다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모님을 감싸주셨던 그 같은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의 일상 안에서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관상 하는 열매로 맺어지길 기도 드립니다.